



크루그먼 교수,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제안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버금가는 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-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재정지출은 GDP의 42% 수준에 달했으며, 크루그먼은 재정지출 프로그램이 교량과 하수관 정비, 뉴저지와 뉴욕 간 기차 터널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.
 - 그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GDP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한 가운데,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미국 GDP의 1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- 크루그먼은 2011년 8월에도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계인 침략과 같은 일이 벌어져 정부가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할 경우 18개월 안에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격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주장함.
- 또한 그는 아직까지 위기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연준과 연방정부로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, 향후 5년간 연준이 평균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.
 - 그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경기침체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, 연준이 최근 발표한 4,000억 달러 상당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미국 채권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함.
 - 한편,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가계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가계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최선이지만, 차선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.

(Huffington Post, 9/28)